중형세단 고급화로 판매반전 노린다

SUV·대형차에 밀려 판매 급락
인테리어 바꾸고 편의 사양 보강
출시 모델 다양화 틈새시장 노려

최근 들어 SUV와 대형 고급차에 밀려 중형 세단이 시장에서 주춤하자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중형차를 고급화해 시장에 내놓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도요타의 캠리, 혼다의 어코드, BMW의 520d, 528 등 5시리즈 등 수입차 시장의 대표적 중형·중대형 세단으로 꼽히는 모델들이 올 들어 판매 대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캠리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판매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4%나 감소한 1380대에 그쳤고, 혼다의 주력 모델인 어코드 2.4도 지난달까지 판매 대수가 지난해 동기보다 14.4% 줄어든 1575대에 머물렀다.

BMW는 '강남 쏘나타'로 불리는 520d가 10월까지 지난해(7465대)에 비해 29.3% 감소한 5279대, 가솔린 차량인 528 모델은 23.5% 줄어든 1842대 팔려 주춤한 실적을 보였다. 메르세데스-벤츠 역시 올해 10월까지 중형 세단인 E300의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 4375대에서 2492대로 43.0%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배기량 1.6~2.0ℓ의 중형 승용차, 배기량 2.0~3.0ℓ 미만의 중대형 승용차가 자동차 시장을 이끄는 주력 차급으로 꼽히는 가운데 이처럼 주력 모델이 부진에 빠지자 업계는 실적 만회를 위한 방편으로 고급화, 차종 다양화로 눈을 돌리고 있다.

도요타는 우선 크기를 키우고, 인테리어를 고급화한 신형 캠리를 최근 한국 시장에 출시하며 판매 반전을 노린다. 도요타 관계자는 "신형 캠리는 완전 변경 모델급으로 외관과 인테리어를 확 뜯어 고쳤다"며 "중형차이지만 도요타 플래그십(최고급) 모델인 아발론급 분위기가 난다고 보면 된다"고 소개했다. 혼다 역시 2015년형 어코드를 출시하면서 뒷좌석 탑승객이 편리하게 수납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 뒷판을 연성 재질로 바꾸는 등 편의 사양을 보강했다. BMW는 차종을 다양화해 고객의 선택권을 늘리는 방식으로 고객 지키기에 나섰다.

BMW 코리아 관계자는 "같은 5시리즈라도 과거처럼 세단만 있는 게 아니라 투어링 모델, GT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며 "결과적으로 고객이 줄어든 게 아니라 여러 모델로 분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역시 2012년 B-클래스, 2013년 A-클래스에 이어 지난 1월 콤팩트 쿠페인 CLA-클래스, 지난 8월에는 콤팩트 SUV인 GLA-클래스를 내놓으며 소형차 라인업을 강화하는 등 차종 다양화로 젊은층을 새로운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들 소형차 모델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지난해(1018대)보다 104% 늘어난 총 2078대가 팔려 최근 국내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판매 호조에 적지 않은 힘을 보탰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젊을 때 경차를 타던 사람이 나이가 들며 소형차, 준중형차, 중형차, 준대형차 순으로 순차적으로 넘어가던 과거의 흐름이 현재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며 "레저 바람과 생활 방식 등의 변화로 소형차를 타던 사람이 SUV로 갈아타거나, 곧장 고급 대형차로 직행하는 사례가 잦아지며 성격이 애매한 중형차가 시장에서 외면받자 업계도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메르세데스-벤츠 'GLA'

도요타 신형 '캠리'

쏘울·쏘나타·제네시스 실내 공기質 기준 충족

국토교통부 6개 권고기준 조사

기아차 '쏘울'

올해 신차 실내 공기질 조사에서 기아차 쏘울과 현대차의 쏘나타와 제네시스 등 3개 차종이 모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올해 6월 신규 제작·판매된 이들 3개 차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등 6개 유해물질이 모두 권고기준을 만족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부터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아크로레인을 추가하고 포름알데히드, 에틸벤젠, 스티렌 등 3종의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차의 유해물질은 내장재와 접착제에서 나오는 것으로 제작 후 3~4개월 지나면 대부분 자연 감소한다"면서 "신차 구입 초기에는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에 신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 마련을 제안하는 등 국제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자동차 연비 검증 깐깐해진다

검증기관 국토부로 일원화…주행저항값 직접 확인

자동차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을 정부가 직접 확인하는 등 연비 검증이 깐깐해진다.

현대 싼타페와 쌍용 코란도스포츠 등의 연비조사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 결과 불일치로 혼선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토부가 사후관리를 전담한다.

정부는 최근 연비 시험 절차·방법을 정비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 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했다. 공동고시안은 연비 조사를 위한 주행저항 시험방법을 규정해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주행저항값을 정부가 직접 검증하도록 했다.

주행저항값은 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 저항과 도로 마찰을 수치화한 것이다. 주행저항 시험방법은 기존 산업부 규정에는 없었으며 국토부도 규정은 뒀지만 주행저항값을 실제로 검증하지는 않고 제작사가 제출한 수치를 바탕으로 연비를 측정해 왔다. 제작사가 제시한 주행저항값과 시험기관 실측값의 오차는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공동고시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핵심인 주행저항시험은 고시 시행일에서 1년 이후부터 신차에 적용된다. 기존 차량은 시행일 이후 2년 6개월간 적용이 유예된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운영과장은 "2016년 조사 때부터 신차의 주행저항시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고시안에 따르면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제작사 신고연비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5%) 안에 들어야 한다. 국토부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오차를 넘지 않으면 적합으로 인정하지만 공동고시안은 산업부 기준으로 통일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내년 국내 車 판매 2%↑ 166만대

경차·신차 증가로 사상최대 기록 전망
수입차 22만5000대 공세 더 거세질 듯

내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올해보다 2.0% 증가한 166만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수입차는 내년에 22만5000대가 팔려 공세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지난 23일 '2015년 자동차시장 전망' 보고서를 공개하고, 내년 국내 시장 판매는 올해보다 2.0% 늘어난 165만5000대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1996년의 164만6000대를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국내 자동차 총등록 대수가 2000만대를 넘어섬에 따라 노후차 증가로 인한 폐차 수요가 늘고,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중형차 등 시장 규모가 큰 차급에서 신차 출시가 이어지는 한편 수입차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내수 시장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소비 심리가 제약받는 점 등 불안 요인도 도사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차급별로는 경차는 신차 출시와 각종 지원 정책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는 반면 중형세단은 SUV와 대형차로 수요가 이동함에 따라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수입차는 내년에도 원화 강세와 자유무역협정(FTA) 영향으로 강화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성장세를 지속, 올해보다 14.8% 늘어난 22만5000대가 팔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친환경차 지원 정책 등과 친환경 신차 출시가 잇따르며 하이브리드 비중이 늘어나고, 엔화 약세를 앞세운 일본 업체의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중국과 인도의 증가세에 힘입어 올해보다 4.2% 늘어난 872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유럽 시장이 장기 부진에 따른 대기수요 유입으로 회복세로 돌아서고, 중국과 인도 시장이 자동차 대중화로 9%대의 증가세를 유지하며 올해(3.3%)보다 성장률이 소폭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내년에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는 소형 SUV 등 소형차를 집중 공략하는 한편 새로운 친환경차 출시를 늘리며 친환경차 부문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GM, 포드 등 미국 업체는 소형 상용차 판매를 늘려 자국 시장을 방어하고, 중국에서는 생산라인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자동차, 이것이 궁금해요

겨울철 엔진 예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Q)겨울철 엔진 예열 안 해도 되나요?

A) 네, 예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시동을 켜자마자 급출발, 급가속 하는 것은 겨울철이 아니더라도 금물이라는 점 명심하십시오(※LPG 차량 제외).

전문가 의견) "LPG 차량이 아니라면 요즘 운행되고 있는 차량의 경우 별도의 예열(공회전)시간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엔진시동을 켜고 차 출발까지 준비하는 일상적인 시간(안전벨트 착용 등)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요즘 양산되는 차량은 엔진의 내구성이 좋아졌고, 냉각조건에 맞춰 엔진 RPM 조정이 바로 작동되기 때문에 굳이 예열이 필요치 않습니다. 장시간 예열하게 되면 오히려 연료소모와 대기오염, 시간낭비만 초래할 뿐입니다.

〈기아차 광주서비스 센터〉

"경매투자"
▶배우면서 투자가능
▶특수물건만 취급
▶1대1 개인지도
▶경매사 자격증 발급
▶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오천경매
H.010-3605-5000

월산동 지하, 지상4층 "상가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19번지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 -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 - 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 - 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4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 시세 및 감정가 -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융 4억 가, 보 1억에 월 340만 가)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 수리
■ 주인 직매 H. 010-3605-5000